

기혼간호사의 모유수유 실태에 관한 연구

백 선 숙* · 최 혜 정*

I.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삶에 있어서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렵고 힘든 경험이며 이 경험에서 회복되면 곧이어 신생아에 대한 모유수유를 실시하게 된다.

신생아는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니나 의료진은 신생아의 특징을 파악하고 질병의 감염예방이나 영양의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아기의 보육에서는 수유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어떠한 인공영양보다 모유가 가장 이상적이다(한림원 편저, 1989).

모유는 생후 첫 영아에게 유일한 영양소이며 (Evans, Syons and Kiltan, 1986) 또한 전염병 및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고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이고 위생적이어서 인공수유에 비하여 모유수유아는 이병율과 사망률이 낮다.

서구에서는 60년대에는 모유수유 실천율이 저조하였으나 80년대 이후부터 모유수유가 크게 증가하여 90% 이상의 모유수유율을 보이고 있으나(Field, 1985; Gulick, 1983) 우리 나라는 1960년대에 95.1%이상의 모유수유율이 1970년대에 46.0~68.9%, 1980년대에 36.0~49.6%, 1990년대에 21.4~34.4%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간호협회, 1996).

이와 같이 모유수유가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서구의 모유수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은 왜 점점 감소하는 것일까? 그 요인을 살펴보면 모유수유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가 미흡하며 (김화숙, 1991), 모유수유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지지자의 격려부족으로 모유수유를 쉽게 포기하고 (조미영, 1990),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엄마의 직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변수자, 1995). 또한 의료인들의 모유 경시 풍조와 모유영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도 중요한 이유이며 (박태근, 1982) 가족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모유수유의 관찰 기회가 거의 없어졌고, 학습대상이 되는 역할모델이 거의 없는 것도 모유수유가 감소하는 큰 이유이다 (Hill, 1987).

모유수유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모유를 먹이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며, 모유수유를 시도하거나 지속하는데 있어서 지지자의 도움과 격려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경혜, 1992).

많은 선행연구들은 일반인의 모유수유 실태를 조사한 것이었으며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배경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인인 간호사들의 모유수유의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 동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II.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혼간호사들의 모유수유실태를 조사한다.
2. 모유수유의 저해요인을 파악한다.

III. 문헌고찰

모유는 아기를 위한 이상적인 식품이며, 생후 첫 4~6개월 동안 아기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식품이다. 아기에게는 영양학적 측면에서 모유가 우유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판명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적절한 소화를 위한 필수 지방산이나 뇌세포의 적절한 성장과 단백질 구성요소인 아미노산의 바른 균형을 위한 락토스와 같은 것을 공급해주고 있다 (김혜숙, 1993; Reeder 외, 1989).

특히 초유는 풍부한 면역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위장관의 세균감염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알러지, 비만증, 대사성 및 다른 질병에 대해 보호적 역할을 한다 (손철, 1983).

모유수유는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친근감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만들어 낸다. 아기는 생체와 안정을 위해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어머니는 아기와의 친근감이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모유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김혜숙, 1993). 하루에 몇 번씩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고동소리를 재확인하고 달콤한 젖을 빨아먹을 기회를 갖는 일이 아기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귀한 경험으로, 이는 장차 형성될 아기의 성격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김혜숙, 1993; 주정일, 1993). 또한 모유수유는 어머니의 산후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이것은 자궁의 수축을 도와 임신 시 커져 있던 자궁이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모유수유 기간동안은 월경이 정지되므로 철분의 손실이 적어 철분을 저장할 수 있으며 배란이 정지되어 자연피임을 할 수 있다 (Reeder 외, 1989).

이러한 모유수유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28.4%로 저조하지만 하며, 모유수유 실천기간도 대상자의 과반수 정도인 47.3%가 3개월 미만으로 실천정도가 낮았으며 (송지호, 김순애, 문영수, 박영주, 백승남, 변수자, 이만희, 조결자, 조희숙, 최미혜, 최양자, 1993), 대부분의 경우 모유수유 기간이 2-4주 사이에 중단되어 모유수유 지속기간이 짧았으며 (이승수, 박재옥, 손창성, 이해란, 신재훈, 정해일,

1994). 어머니들이 출생 후 2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모유수유 기간을 분만 2개월로 정하기도 하였다 (박옥희, 1992).

분만 후 3일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도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25.3%이며 분만 후 4-6일 이내는 28.2%이며 7일 이후에는 22.4%가 모유수유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는 기간도 대상자의 64.0%가 1개월 이내였으며 3-4개월까지 수유를 지속하는 경우는 12%정도였다 (박옥희, 권인수, 1991).

이렇게 모유수유 실천이 저조한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어머니가 병원분만을 하고 있으나 입원해서 퇴원하기까지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을 거의 받아보지 않았으며 (정혜경, 이미라, 1993) 퇴원한 산모들은 곧바로 유방의 울혈을 경험하고 젖몸살로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회음절개술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서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은 산모에게는 커다란 고통이며 분만으로 인해 허약해진 산모의 건강은 더욱더 젖먹이는 일이 어려운 일로 직면하게 되며 이때 주위사람들의 격려가 부족하면 산모는 젖먹이는 일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 분만 후 6주 동안 대부분의 어머니는 유방의 울혈, 유두손상, 유두의 출혈, 유방염 등의 불편감을 경험한다 (Grafy, 1992).

또한 가족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모유수유에 대한 역할모델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산후 조력자의 지지부족으로 인해 모유수유의 어려움이 생기면 출산 후 며칠 이내에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Cronewett and Reinhardt, 1987).

직업여성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모유수유를 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하면 여차피 곧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로 더욱 쉽게 포기하며, 주위의 지지자들도 직장복귀라는 이유로 더 이상 모유수유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에 비해 직업물 갖은 여성의 모유수유 실천율이 훨씬 저조하다 (변수자, 1995). 쉽고 간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인공수유가 권장되고 있으며 의료인들조차도 모유수유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으며 (김신정, 이정화, 1993) 분유회사의 과대선전은 모유와 분유의 성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모유수유의 실천을 저해하고 있다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이미자, 1995).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이유를 보면 모유의 변환화제 작용으로 인하여 무른변을 자주보게 되는데 이를 실사로 오인하여 어머니 자신의 젖이 아

기에게 적합치 않다고 잘못 판단하여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오현이 등, 1994) 모유를 먹이는 것이 밤에 자주 일어나게 되어 힘들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책임을 혼자서 떠맡게 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모든 일이 아기 위주로 되어 어머니 자신이 희생된다는 피해의식, 모유수유를 꼭해야 한다는 산모의 의지력 부족 등도 모유수유를 기피하거나 쉽게 중단하는 요인이다(오현이 등, 1994; 정혜경, 이미라, 1993). 무엇보다도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김화숙, 1991).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임신중이나 분만시 의료진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료진들의 관심과 교육은 산모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분만시 입원기간에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모유수유를 증진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 한편 오현이등(1994)은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못느낌,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 유즙부족, 아기에 대한 거부감, 남편의 지지부족, 유두균열 및 동통, 아기의 거부, 가족의 지지부족, 설사, 물젖등으로 보았다.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등(1997)은 모유수유 장애요인으로 엄마의 직업을 문제로 나타냈으며, 변수자(1995)는 취업모의 모유수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23명의 대상자중 4.6%만이 모유수유를 하였으며, 58.2%가 인공수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업모의 모유수유 실태가 매우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취업여성이 점점 증가되는 이 시대에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직장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취업여성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취업여성이 직장내에서의 모유수유나 또는 모유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얼음통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와서 아기에게 먹이는등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중재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병원에 근무하는 기혼간호사의 모유수유 실태를 조사

하기 위하여 서울, 동해, 삼척, 강릉에 거주하는 간호사로서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 5세 이하이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을 만 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최근 5년이내의 모유 수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2. 도구제작

도구는 최상순등(1996)이 만들어낸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총 18문항의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3.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의 자료는 1999년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집되었다. 서울에 있는 2개의 C대학부속병원과 삼척소재 1개 병원, 동해소재 2개 병원, 강릉소재 1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180 매를 배포하였으나 158 매가 수거되었으며 기록이 누락된 설문지 8매를 제외한 150매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대상자의 자녀는 모두 208명이었다.

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실수	%
연령	26-30세	49	32.7
	31-35세	80	53.3
	36-40세	21	14.0
	기독교	41	27.3
	천주교	16	10.7
종교	불교	27	18.0
	무	65	43.3
	기타	1	7
근무년수	4년 미만	6	4.0
	5-10년	95	63.3
	10-15년	49	32.7

	일반간호사	107	71.0
	책임간호사	20	13.3
직 위	수간호사	20	13.3
	간호감독	1	0.7
	과장이상	2	1.3
	핵가족	95	63.3
가족 형태	시댁식구동거	40	26.7
	친정식구동거	15	10.0
	전문대졸	108	72.0
교육 정도	대학교졸	34	22.7
	대학원	8	5.3
	100-200만원	130	86.7
월 수입	200-300만원	16	10.7
	300만원이상	4	2.7
	1명	95	63.3
자녀 수	2명	52	34.7
	3명	3	2.0

연령은 31-35세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 종교가 없는 사람이 43.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1.0%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63.3%이며 교육정도는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72.0%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은 100-200만원 사이가 86.7%였으며 자녀수는 1명인 사람이 63.3%였다.

〈표 2〉 대상자 자녀의 수유실태

구분	모유(%)	혼합수유(%)	우유(%)	계(%)
첫째아이	2(1.4)	50(33.8)	96(64.9)	148(100.0)
둘째아이	-	22(40.0)	33(60.0)	55(100.0)
셋째아이	-	2(66.7)	1(33.3)	3(100.0)
계	2(0.5)	74(46.8)	130(52.7)	3(100.0)

〈표 3〉 모유수유 실시기간

모유수유기간	실 수(%)	실 수(%)	실 수(%)
	첫째아이	둘째 아이	셋째아이
1개월 이내	77(80.2)	22(73.3)	2(66.7)
2개월	13(13.5)	5(16.7)	1(33.3)
3개월	2(2.1)	1(3.3)	
4개월	1(1.0)	1(3.3)	
6개월 이상	3(3.1)	1(3.3)	

2. 대상자자녀의 수유실태

대상자 자녀가 첫째아이인 경우 148명, 둘째 아이가 55명, 셋째아이가 3명이었다. 대상자 자녀들의 수유실태를 보면 첫째아이의 모유수유율은 1.4%이며 혼합수유는 33.8%, 우유 수유율은 64.9%이며 둘째 아이의 경우 혼합수유율 40.0%, 우유수유율 60.0%로 모유수유가 전혀 없었으며, 셋째아이의 경우도 혼합수유율 66.7%, 우유수유율 33.3%로 모유수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상순, 이은희, 윤경희, 심복경, 최남희(1996)의 원주지역 모유수유율이 23%, 임은숙과박난준(1994)의 전남·북지역의 35.4%, 권숙희, 김영자, 김영혜, 김인순, 문길남, 박금자, 박봉주, 박순옥, 박춘화, 배영순, 배정미, 백경선, 송애리, 이영은, 이은주, 이지원, 이화자, 정경애, 정은순, 최혜숙(1993)의 부산·경남지역의 28.4%등 일반인의 모유수유실태와 비교해볼 때 간호사의 모유수유율은 평균 0.5%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표 2).

3. 모유수유 실시기간

모유수유 실시기간을 살펴 보면 첫째아이의 경우 1개월이 80.2%였고, 6개월 이상은 3.1%에 해당되었으며 둘째 아이의 경우 1개월이 73.3%로 대부분이었고 셋째아이

도 1개월이 66.7% 였다. 이는 박인화, 황나미 (1994)의 조사에서 평균 3개월 완전 모유수유율이 41.6%, 6개월이 28.8%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간호사들의 모유수유 실시기간이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표 3).

4. 모유수유 실시와 관련된 요인

대상자들이 모유수유를 실시한 요인과, 실시하지 못한 요인, 모유수유를 실시했다가 중단한 요인등을 조사한

결과(표 4)와 같다. 모유수유를 실시한 이유들을 보면 전체 150명 중 100명이 중복응답 하였는데 100중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가 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아기와 의 정서적 유대를 위해서 75%,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 44%, 산후회복을 위해서 24%로의 순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모유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아기의 건강이 최우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상순등(1996)의 연구에서도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52.5%, 그 다음이 아기와 의 정서적 유대를 위해서가 34.2%로 나타난 것과 비

<표 4> 모유수유 실시와 관련요인

모유수유 실시 요인	응답 수	%
①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97	97.0%
② 아기와 의 정서적 유대를 위해서	75	75.0%
③ 당연한 일	44	44.0%
④ 산후회복을 위해	24	24.0%
⑤ 먹이기 편리해서	9	9.0%
⑥ 어른의 권유로	5	5.0%
⑦ 자연식품이기 때문	19	19.0%
⑧ 아기가 모유를 좋아해서	6	6.0%
⑨ 경제적이므로	16	16.0%
합 계	100	

모유수유 저해요인		
① 엄마의 직업	58	79.5%
② 아기의 질병	5	6.8%
③ 산모의 질병	6	8.2%
④ 유방의 비정상	19	26.0%
⑤ 병원에서 우유를 먹여서	9	12.3%
⑥ 엄마의 건강고려	3	4.1%
⑦ 유방의 노출이 싫어서	-	-
⑧ 유방의 모양이 변할까봐	-	-
⑨ 기타	18	24.7%
합 계	73	

모유수유 중단이유		
① 모유량이 부족해서	38	34.2%
② 엄마의 직장관계로	92	82.9%
③ 아기의 건강문제로	3	2.7%
④ 아기가 배고파 잠이 들지 못해서	7	6.3%
⑤ 젖이 아파서	22	19.8%
⑥ 남편이나 가족의 반대로	-	-
⑦ 엄마가 힘들고 피곤해서	3	2.7%
⑧ 기타	9	8.1%
합 계	111	156.8%

슷한 결과로 일반인이나 간호사들간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이유들을 보면 전체 150명중 73명이 중복응답 하였으며, 73명 중 엄마의 직업이 7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유방의 비정상 26.0%, 유방의 모양이 변할까봐 2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1995)의 연구결과와 최상순 등의 (1996)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이다.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중단한 이유를 보면 전체 150명중 111명이 중복응답 하였으며, 그 111명중 직장관계(복귀) 82.9%로 가장 많고, 모유량이 부족해서 34.2%, 젖이 아파서가 19.8%로 나타났다. 최상순등(1996)의 연구에서는 모유량 부족이 3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엄마의 직장관계 19.6%순이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직장인(기혼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모유수유의 저해요인과 중단이유가 엄마의 직장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할 것임을 비추어 볼 때 직장 여성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 되어야함은 물론이며, 직장여성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에 모자동실을 운영하는등 병원정책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서 직장내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5. 출산 후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기

기혼간호사들이 아기가 출생 후 처음 모유수유를 실시

한 시간은 첫째아이의 경우 출생 후 24시간이내에 실시한 경우가 8.2%, 24-48시간 이내에 실시한 경우 34.7%, 19-72시간 이내에 실시한 경우 22.0%, 73시간 이후에 실시한 경우 10.7% 였다. 즉, 대부분이 24-72시간에서 처음으로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akyung Lee(1996) 등의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들이 출생직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경우가 54.0%, 출생 후 1시간이내가 30.0% 등으로 출생직후와 출생 후 1시간 이내가 30.0%등으로 출생직후와 출생 후 1시간 이내에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타일랜드에서는 출생직후 54.0%가 모유수유를 한다는 것은 타일랜드 여성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높다고 사료된다. 이은숙, 서영숙 (1996)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조군 어머니의 48.5%가 48-72시간내에 처음으로 모유수유를 시작했고, 실험군 어머니는 52.8%가 24시간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며 모유수유 강화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일수록 24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실시했다는 것은 모유수유를 실시하는데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표 5).

6.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기혼간호사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본 결과 "꼭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36.7%였으며, "상

〈표 5〉 출산 후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기

시작시기	실 수(%)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출산 후 24시간 이내	9 (8.2)	3 (7.7)	
출산 후 24-48시간	52 (34.7)	18 (46.2)	
출산 후 49-72시간	33 (22.0)	14 (35.9)	2 (100)
출산 후 73시간 이후	16 (10.7)	4 (10.3)	
결 과	40 (26.7)		

〈표 6〉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구 분	실 수
① 꼭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36.7)
② 상황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	91(60.7)
③ 꼭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	4 (2.7)

황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가 6.7%로 나타나, 이는 정혜경(1993)의 연구에서 모성본능 추구형과 편의추구형에 각각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는 편의추구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엄마들의 태도는 모유에 대한 장점과 엄마 된 도리로서 모유수유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모유수유를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직업을 가진 엄마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표 6).

7.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평가

기혼간호사들의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평가는(표 7)과 같다. "모유수유를 못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60.2%로 이는 정(1993)의 임부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에서 볼 때 편의 추구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직장여성들은 직장생활과 모유수유는 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예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금 더 노력했으면 모유수유를 했을텐데 아쉽다"가 33.6%로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련과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이때 남편이나 주위의 지지 또는 격려가 모유수유를 계속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사료된다. 만약에 아이를 다시 낳는다면 "꼭 모유수유를 하겠다"가 24.2%로 이는 모유수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과 학생에게도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직장인이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8. 일반적 특성과 수유방법과의 관계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수유방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표 8)과 같다. 대상자들의 종교와 수유방법과의 관계를 보면 기독교, 천주교 그룹은 혼합수유와 우유

<표 7>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평가

구 분	실 수(%)
① 모유수유를 못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1(0.8)
② 모유수유를 못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77(60.2)
③ 조금 더 노력했으면 모유수유를 했을텐데 아쉽다.	43(33.6)
④ 만약에 아이를 다시 낳는다면, 꼭 모유수유를 하겠다.	31(24.2)

<표 8> 일반적 특성과 수유방법과의 관계

특 성	구 분	모 유 (%)	혼합수유 (%)	우 유 (%)	계 (%)	Chi.	P
첫째아이	종 교					8.488	.204
	기독교	-	17(41.5)	24(58.5)	41(100)		
	천주교	-	9(56.3)	7(43.8)	16(100)		
	불교	1(3.7)	6(22.2)	20(74.1)	27(100)		
	무교	1(1.6)	18(28.6)	44(69.8)	63(100)		
근무연수	4년미만	-	2(33.3)	4(66.7)	6(100)	1.468	.832
	5-10	2(2.1)	33(35.1)	59(62.8)	94(100)		
	11-15	-	15(31.3)	33(68.8)	48(100)		
직 위	일반간호사	2(1.9)	34(32.1)	70(66.0)	106(100)	1.423	.964
	책임간호사	-	7(36.8)	12(63.2)	19(100)		
	수간호사	-	7(35.0)	13(65.0)	20(100)		
	간호감독			1	1(100)		
교육정도	전문대졸	1(0.9)	33(30.8)	73(68.2)	107(100)	3.941	.414
	대졸	1(3.0)	15(45.5)	17(51.5)	33(100)		
	대학원졸	-	2(25.0)	6(75.0)	8(100)		

수유가 100%로 모유수유실시는 전무한 상태로, 이는 대부분이 혼합수유와 우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근무연수와 수유방법과의 관계는 근무 연수가 4년 미만의 그룹에서 혼합수유 33.3%, 우유수유 6.7%

로 근무연수에 따른 수유방법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와 수유방법과의 관계를 보면 직위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혼합수유와 우유 수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들의 교육정도와 수유방법과의 관계를 보면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상순 등 (1996)의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실시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최상순(1996)등의 연구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 모유수유를 월등히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정도가 모두 전문대졸 이상이라는 점과 모두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감안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9. 출생 후 모유수유를 처음 시작한 시기와 수유방법과의 관계

대상자들의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기와 수유방법과의

관계는 (표 9)와 같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한 그룹에서는 수유방법인 모유수유가 11.1%였고, 혼합수유와 우유수유는 각각 44.4% 있었으며, 출생 후 24-48시간 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한 그룹에서는 수유방법인 모유수유가 2.0%로 대부분 혼합, 우유 수유였다. 또한 출생 후 49-72시간 이후에 모유수유를 시작한 그룹은 모유수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출생 후 73시간 이후에 처음 모유수유를 시작한 그룹 역시 모유수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우유수유가 81.3%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기와 수유방법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0. 출생 후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기와 모유수유를 실시한 기간과의 관계

대상자들의 출생 후 모유수유를 실시한 시기와 모유수유를 실시한 기간과의 관계는(표 10)과 같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한 그룹에서는 42.9%가 1개월간 모유수유를 실시하였고 2개월간 모유수유 실시도 42.9%로 거의 대부분이 1, 2개월 이내였다. 출생 후 24-48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한 그룹에서도 1개월 동안 모유수유를 실시한 대상자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출생 후 49-72시간에 모유수유를 시작한 그룹에서는 1개월간 모유수유를 실시한 경우가 75.9%였다.

〈표 9〉 출생 후 모유수유를 처음으로 시작한 시기와 수유방법과의 관계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기	모유(%)	혼합수유(%)	우유(%)	계(%)	Chi	P
첫 째 아 이						
출산 후 24시간 이내	1(11.1)	4(44.4)	4(44.4)	9(100)		
출산 후 24-48시간	1(2.0)	26(51.0)	24(47.1)	51(100)	10.875	0.092
출산 후 49-72시간		14(42.4)	19(57.6)	33(100)		
출산 후 73시간 이후		3(18.8)	13(81.3)	16(100)		

〈표 10〉 출생 후 모유수유를 처음 시작한 시기와 수유방법과의 관계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이상(%)	계(%)	Chi	P
첫 째 아 이								
출산 후 24시간 이내	3(42.9)	3(42.9)	1(14.3)			7(100)	8.940	0.347
출산 후 24-48시간	37(82.2)	6(13.3)	1(2.2)		1(2.2)	45(100)		
출산 후 49-72시간	22(75.9)	4(13.8)		1(3.4)	2(6.9)	29(100)		
출산 후 73시간 이후	9(100)					9(100)		

이들 결과로 보아 출산 후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모유수유 기간은 1개월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시작한 시기와 모유수유 실시기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사들이 직장생활과 모유수유를 병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병원내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동해, 강릉, 삼척 지역의 기혼간호사의 모유수유실태와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직장인들의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1999년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에 있는 C 대학부속 2개의 병원과 삼척지역 1개의 병원, 동해지역 2개의 병원, 강릉소재 1개의 병원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기혼간호사로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5세 이하인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150명의 기혼간호사와 208명의 자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31-35세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를 지니지 않은 대상자가 43.3%였다. 근무년수는 5-10년 근무가 63.3%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1.0%로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었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63.3%로 많았다. 교육정도는 전문대졸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월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86.7%였다. 자녀수는 1명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 63.3%로 가장 많았고, 2명이 34.7%, 3명 이상이 2.0%였다.
2. 대상자 자녀의 수유실태는 첫째아이의 경우 모유 1.4%, 혼합우유 33.8%, 우유 64.9%로 모유수유율이 현저히 낮았으며 둘째, 셋째아이도 비슷한 결과이다. 모유수유 실시기간도 첫째아이의 경우 1개월 이내가 80.2%이며 둘째, 셋째도 1개월 이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유수유 실시와 관련된 요인에서 실시요인은 전체 150명중 100명이 중복응답 하였으며,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97%, 아기와 의 정서적 유대를 위해서가 75%, 엄마로서 당연한일 44%의 순이었다. 저해요

인으로서는 전체 150명중 73명이 중복응답 하였으며, 엄마의 직업 79.5%, 유방의 비정상 26.0%, 유방의 모양이 변할까봐 24.7% 순이었다. 모유수유를 중단한 요인은 전체 150명중 111명이 중복응답 하였으며, 엄마의 직장이 82.9%, 모유량이 부족해서 34.2%, 젖이 아파서 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도 엄마의 직장이 모유수유를 실시하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4. 출산 후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기는 24-48시간에 시작한 경우 34.7%, 49-72시간에 시작한 경우 22.0%였으며,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경우는 8.2%에 불과했다.
5. 대상자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꼭 실시해야 한다가 36.7%였고 상황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가 60.7%로 나타났으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6. 대상자들의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평가에서는 모유수유를 못한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60.2%로 이는 엄마의 직장생활이 모유수유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생각으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조금 더 노력했으면 모유수유를 했을텐데 아쉽다 는 33.6%로 주위 지지자의 격려나 직장에서의 배려와 모유수유에 대한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타나냈다. 만약에 아이를 다시 낳는다면, 꼭 모유수유를 하겠다는 24.2%로 이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모유수유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기혼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8. 출생 후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기와 수유방법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9. 출생 후 모유수유를 시작한 시기와 모유수유를 실시한 기간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혼간호사들의 모유수유율은

전국의 평균 모유수유율보다 상당히 낮음을 알수 있으며, 직업을 갖고 있는 기혼간호사들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유수유는 직업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대학시절 모유수유에 관한 장점은 배웠지만 직장생활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과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산실과 신생아실의 간호사나 의사들도 모유수유의 장점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권유나 홍보, 교육등이 미흡한 것이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또한 병원에서도 기혼간호사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미흡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모유수유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기혼간호사들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직장인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직장인의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하여 간호과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을 제한한다.
2.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많은 기혼 간호사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때 주위의 지지자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며 특히 남편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남편에게 분만교실등을 통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무엇보다도 직장인들이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때에는 직장에서의 배려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특히 간호사들은 대부분이 여성인 만큼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병원정책(예: 모자동실 운영등)이 뒷받침 되면 모유수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4. 병원 뿐만으로 인해 아기가 출생시 부터 엄마와 분리되어 우유를 먹는 것은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며,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의사나 간호사가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권숙희, 김영자, 김영혜, 김인순, 문길남, 박금자, 박봉주, 박순옥, 박춘화, 배영순, 배정미, 백경선, 송애리, 이영은, 이은주, 이지원, 이화자, 정경애, 정은순, 최혜숙 (1993). 모유 수유실천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 김신정, 이정화 (1993).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연구. 간호과학, 5권, 33-65.
- 김화숙 (1991).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3). 모유의 신비. 에드텍.
- 김혜숙 (1995). 의료요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및 지식정도의 비교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243-253
- 대한간호협회 (1996). 모유수유 실천의 중요성과 대책. 대한간호, 35(2), 25-34
- 박옥희 (1992). 임신중 유방간호가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22(1), 29-41
- 박옥희, 권인수 (1991). 산후 경과별 모유수유실태. 모자간호학회지, 1, 45-58
- 박인화, 황나미 (1995). 모유수유 실태분석과 지원정책의 과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박태근 (1982). 모자보건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변수자 (1995). 취업모의 모유수유 실태와 지속방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37-152
- 송지호, 김순애, 문영수, 박영주, 백승남, 변수자, 이남희, 조결자, 조희숙, 최미혜, 최양자 (199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53-165
- 손 철 (1983). 엄마찾아 최고야, 서울: 전파과학사
- 이경혜 (1992). 국내 모유수유의 실태. 생활간호, 12, 114-116
- 이미자 (1995). 모유수유 저해요인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실 간호사간의 인식정도 비교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 108-119
- 이승수, 박재욱, 손창성, 이혜란, 신재훈, 정해일 (1994). 수유실태조사. 소아과, 37(12), 1657-1668
- 이은숙, 서영숙 (1996). 모유수유 강화교육 프로그램이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59-75

- 임은숙, 박난준 (1994). 모유수유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포전문대 논문집, 18집, 397-437.
-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모자보건학회지, 4(1), 68-79
- 정혜경 (1993).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유형 분석. 중대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이미라 (1993).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유형분석. 모자간호학회지, 3(2), 126-141
- 조미영 (1990).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모유수유 권장 대책 토론회, 소비자 문제로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주정일 (1993). 태교, 출산의 지혜. 서울: 샘터.
- 최상순, 이은희, 윤경희, 심복경, 최남희 (1996). 모유수유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22-233
-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1997). 모유수유를 실천한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및 지식정도. 대한간호, 36(12), 164-171.
- 한림원편저 (1989). 임신과 출산, 청목, p294
- Armond, S. G. (1981). Human Milk, Leukocytes and Immunity. Pediatrics, 90, 167-168
- Baea, E. C. (1981). Promoting Breast Feeding : A Maternal responsibility. Studies in F. P. 12(4), 198-199
- Evans, C. J., Lyons, N. B., & Killien, M. G. (1986). The Effect of Infant Formula Samples on.
- Cronenwett, L. R., & Reinhardt, R. (1987). Support and breast feeding : A review. Birth, 14(4), 199-203. Breastfeeding Practice. JOGNN, September/October, 401-405.
- Field, P. A. (1985). Parent's reaction to maternity care. Midwifery, 1, 37-46.
- Gulick, E. E. (1982). Informational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feeding. MCN, 7, 370-375
- Grafy, J. P. (1992). Mothers attitudes and experience of breastfeeding : A primary care study. Br J. Gen. Prac., 42(355), 61-64.
- Haekyung Lee., Wanne Deoisres., & Chintana Wacharasin. (1996). Nurses' Practice and Knowledge of Breastfeeding in Korea and Thailand.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180-190.
- Hall, L. A. (1980). Effect of Teachong on primiparous. Perception of Their New-born. UN, 29(50), 312-317
- Hill, P. D. (1987). Effect of education on breastfeeding success MCN, 16(2), 145-156.
- Reeder, S. J., Martin, L. L. (1987). Maternity Nursing, 16th, Philadelphia, JB Lippincott.

- Abstract -

key concept: married nurse.
incidence of breast-feeding

A Study on the Incidence of Breast-Feeding by Married Nurses.

Baek, Sun Sook * · Choi, Hye Jung *

This descriptive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of and reasons for the interruption of breast-feeding by married nurses. For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from married nurses, each of whose last child was under five years old, living in Seoul, Tong Hae, Sam Chok and Kang Rung. The number of children involved was 208.

The data was collected from various places in Seoul, Tong Hae, Sam Chok and Kang Rung area, using 150 survey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roportion of children receiving breast-feeding was 1.4%, mixed feeding 33.8%, and milk feeding 64.9%. The most frequent

* Fulltime Lecture, Department of Nursing, Tong Hae Junior College.

duration of breast-feeding was one month(80.2%).

2. The major reasons for breast-feeding were the health of the child 97%, and for emotional attachment with the child 75%.
3. The major reasons for interrupting breast-feeding were the job of mother 79.5%, and an abnormality of the breast or nipple 26.0%.
4. The major reasons for quitting breast-feeding

were the job of mother 89.2%, insufficient breast milk 34.2%, and breast pain 19.9%.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breast-feeding ratio in married nurses is very low.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education about and propagation of breast-feeding be carried out. To enhance and promote breast-feeding, hospital managers should provide a comfortable environment, which is conducive to breast-feeding.